

【논 문】

경제통합과 민족 정체성*

— 멕시코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 성 형

(El Colegio de México 초빙교수)

1. 서 론

멕시코 사회는 1982년 외채위기를 기점으로 지난 20년간 급격한 정치 경제적 변화를 겪어왔다. 이미 경제적으로는 30년대 공황에 버금가는 두 번의 위기(1982년, 1997년)를 겪은 바 있고, 그로 인한 사회적 충격도 극심한 편이다. 사회에 만연한 가난과 실업의 고통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2,000년 3월 현재 약 4만 명의 어린이들이 멕시코 시티에서 ‘거리의 아이들’로 살고 있다고 언론은 보도한다. 40여 년이 지난 루이스 부뉴엘의 흑백영화 「잊혀진 사람들」(Los olvidados)에서 나오는 도시 청소년들의 모습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그래도 그때는 가부장적인 멕시코 국가가 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교화소를 통해 표현하기도 했는데, 현재의 신자유주의 국가는 이 문제를 거의 방치하고 있다. 이 보다 더 심각한 도시의 치안 문제도 조직범죄와 마약 카르텔의

* 본 연구는 199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해외지역연구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준동으로 극도로 악화되어 국가의 보안 능력을 의심케 할 정도이다. 멕시코 사회의 ‘콜롬비아화’란 말들이 자연스레 잡지의 표제어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런 거둬들인 경제실정과 사회적 위기로 인해 지난 70년간 권력을 독점한 제도혁명당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도 현저히 악화되었고, 그 결과로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우익 야당인 국민행동당의 비센테 폭스 후보가 당선된 바 있다.

현단계 멕시코 사회의 위기와 그 성격에 대한 논란은 여러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1917년 혁명헌법으로 요약되는 거대한 사회협약 체제는 지난 30년 동안 서서히 붕괴되어가면서 새로운 틀을 짜며 나가고 있는 중이다. 특히 1982년 외채위기를 기화로 진행된 발전모델의 수정과 대외지향적 개방화로 인한 변화는 멕시코 혁명의 제도적, 이념적 유산을 체계적으로 해체시키는 것이기에 우리의 눈길을 끈다. 필자는 이점에 착안하여 경제구조의 변화, 코포라티즘 체제의 변모 과정, 그리고 급격한 대외개방 정책과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 정책의 후유증으로 등장한 치아파스 농민반란 등을 차례로 검토하면서 이러한 구조변화의 흐름을 구체적인 정치과정으로 분석한 바 있다(이성형 1998). 이 과정에서 일파암적인 제도혁명당 체제가 스스로 자신의 제도적 유산을 해체하면서 세계화의 추진세력으로 자임했다는 점이 우리의 눈길을 끈다. 제도혁명당 세력은 82년 외채위기를 전후로 발전모델을 변경할 필요성을 느끼고 용이주도하게 기술관료적 리더십을 창출하면서 자신의 변모를 꾀한 바 있다. 1980년대부터 진행된 급속한 대외개방과 신자유주의 경제 사회 개혁은 ‘혁명적 민족주의’를 당강령으로 지닌 제도혁명당 세력에 의해 추진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질문해 볼 수 있다. 첫째,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반세기 가량 멕시코 사회를 통합시켰고 이끌어왔던 ‘멕시코 혁명의 이데올로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담론으로 변화를 겪었는지, 또 그러한 변화를 몰고온 구체적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미국과 3천 킬로미터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멕시코는 반제국주의적,

제3세계적 담론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방어해 왔고 강력한 미국의 흡인력에 저항해왔다. 멕시코 혁명기에 나타난 배외적 민족주의적 경향은 1936년 미국계 석유회사의 국유화를 기점으로 비단 정부의 대외정책뿐만 아니라 멕시코 사회를 결집시키는 신화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런 방어적 민족주의 경향은 1980년대에 가속화된 미국과의 ‘조용한 통합’이 진행되면서 커다란 변모를 겪었다. 이러한 변화는 1994년 북미자유무역지대의 출범으로 가시화된 ‘강령적 통합’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필자의 관심은 이러한 경제통합 과정이 멕시코 사회의 민족 정체성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멕시코 사례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시대에 국민적 정체성 논의는 여러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사례 연구는 드문 편이다. 특히 세계화를 끌여가기보다는 수용해야 하는 약소국 내지 중진국의 엘리트들이 자신의 민족적 또는 국민적 정체성을 어떤 방식으로 재구성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거의 없다. 멕시코의 예는 비슷한 경제규모를 지닌 한국에게도 여러 측면에서 반면 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두 번째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대체로 앤더슨의 연구(Anderson 1983)이래 민족주의는 국가 엘리트의 주도적 프로젝트로만 이해되어 왔다. 1980년대 이후의 멕시코 사례에서는 위로부터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반응도 만만치 않다. 치아파스의 반란이 제기한 인디오 문제라든가, 선거반란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지방으로부터의 문제제기에 이르기까지 원심적 경향도 거세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멕시코 사례 분석을 통해 세계화의 압력에 대한 (반)주변부 정치 엘리트들의 순응적 대응에 저항하는 아래로부터의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터져 나오는지 분석함으로써 현재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정체성 정치’의 거시적 전망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멕시코의 ‘혁명적 민족주의’가 처한 위기를 간단히 살펴본

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위기의 징후를 몇 개의 에피소드를 예로 들어 열거하여 그것이 지닌 복잡한 측면을 드러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외채위기로 가시화된 발전모델의 변화가 ‘혁명적 민족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매개구조의 변화 과정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제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새로운 권력층으로 등장한 기술관료적 담론이 규정하는 민족 정체성의 실체를 살펴보고 이것이 지닌 문제점을 검토하고, 제5장에서는 위로부터 강제되는 정체성의 정치에 아래로부터 제기되는 저항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제6장에서는 위에서 논의된 문제점들을 요약하면서 현단계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갈래의 정체성 논의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면서 향후의 연구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발전모델의 변전과 ‘혁명적 민족주의’의 위기

지난 10여 년간 멕시코 사회 일각에서는 ‘민족주의의 위기’ 논란으로 시끌벅적하다(Bartra 1991, 1993; Monsiváis 1992; Valenzuela Arce 1992; Lomnitz 1998). 1940년대부터 시작되어 90년대 초까지 진행된 ‘혁명의 죽음’ 논란은 최근에 들어와서 급격하게 진행된 국제화와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의 여파로 한 풀 꺾이고, 새로운 질서에 대한 대안 논의로 대체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민족주의의 위기 논의는 대외개방 및 신자유주의 구조개혁과 더불어 다양한 갈래로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정체성의 모색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흥미를 끈다. 특히 1930-40년대에 완성된 ‘혁명적 민족주의’란 담론과 이를 물질화한 제도적 유산들이 제도혁명당의 권위주의 정권 창출과 공고화에 나름대로 기여하였다는 지식인 사회의 반성이 제기되면서 ‘민족주의 위기’ 논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화 이행 논의와도 맞물려 있다(Bartra 1993; Loaeza 1994).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민족적 내지 국민적 정체성의 추구는 바로 국제화, 민주화, 지방화 등과 같은 지난 20여 년간의 도전 속에서 멕시코인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됨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이다.

민족주의의 위기가 논의되는 맥락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과거 수입 대체산업화 시기에 형성된 소위 ‘혁명적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형성 과정과 이것을 둘러싼 매개구조를 간단히 살펴보고, 또 이것이 1982년 이후 어떠한 충격으로 변모를 겪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1) 수입대체산업화와 민족주의: “국가=민족=근대성”

20세기의 멕시코 민족주의는 멕시코 혁명(1910-17) 이후 형성된 국가가 만들어낸 ‘국가통합’ 이념을 그 근간으로 삼고 있다. 국가통합은 대외적으로 자국의 주권을 배타적으로 보호하고, 대내적으로는 혁명을 야기시킨 다양한 갈래의 분열상을 치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국가통합 이념은 대외적으로는 ‘반외세 민족주의’를, 대내적으로는 ‘국민단합’을 의미했다.¹⁾

우선,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했으나 항상 유럽 열강과 미국의 내정 간섭 내지 공개적인 침입을 경험한 독립국가 멕시코로서는 외침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고 내부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외세 민족주의’를 창달할 필요가 있었다. 멕시코 혁명 당시 자국 영토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침입한 미국에 대해 국민들이 보인 거부감을 하나의 민족적 감정으로 묶어 내었던 카란사 대통령은 반미 민족주의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탁월한 정치인이었다. 카란사 대통령의 주도로, 민족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명문화한 1917년 혁명헌법은 여러 조항에서 국가의 주권과 공익보전 기능을 극대화하고 있는데, 이 조항들은 1936년 까르데나스 대통령의 석유자원 국유화 조치에서 극적으로 구체화된다.

이와 더불어 인종적 다양성(백인, 메스티조, 인디오), 지리적 다양성, 계급적 격차 등과 같이 ‘여러 개의 멕시코’(many Mexicos)가 공존하고 있는 멕시코에서 혁명 이후 국가는 원심적인 경향을 억압하고 혁명과정

1) 상세한 논의는 줄고(1999b)를 참조하시오.

에서 제기된 온갖 사회적 정치적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해서 ‘국민단합’이란 통합적 이념을 창달할 필요가 있었다. 인종적 관념의 측면에서 국민단합 이념을 제시한 것이 바로 ‘메스티조화’(mestizaje)였고, 혁명 이후 국가는 바로 메스티조 문화를 국민문화로 공식화했고, 국가에 의한 문화의 생산을 창달하여 이를 전국적 차원으로 확산하고자 하였다.²⁾

혁명 이후 멕시코 국가는 중남미 역사상 최초로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사회개혁을 실행하여 수입대체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준비하였다. 선진적인 노동입법을 제정하였고, 그리고 다수의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배분한 국가는 1930년대 공황 이후 대외시장과의 연계가 축소된 계기를 틈타서 내수시장의 확장에 기초한 근대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1936년 외국인들이 통제하고 있던 석유회사를 국유화하여 자원민족주의를 실현한 국가는 이후에도 전력, 전화, 제철업, 광업 등과 같은 전략산업과 공익 서비스 분야에 대한 국가통제 원칙을 적용하여 ‘직접적 투자자’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허약한 민간기업들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였다.

혁명헌법이 제시하고 있는 국가의 가부장적 보호주의적 특성은 교육, 과학과 기술, 그리고 문화창달에 대한 배타적 투자자로서의 기능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났다. 멕시코의 혁명헌법은 국가와 교회의 엄격한 분리는 강조하고 있지만, 국가와 지식, 국가와 예술 사이의 분리에 대해서는 불명확했다. 이 분야에 대한 국가의 보호주의적, 후원적 성격은 방대한 투자를 통해 지식과 예술, 그리고 과학에 대한 훈육과 통제가 일반화되는 것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국가가 주도하는 문화와 지식의 생산은 주로 멕시코 시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밀집해있고 고등교육기관과 문화 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까닭에 여기서 생산되고 해석된 “민족의 감정”(sentimientos de la nación)이 지방으로 확산되었다. “멕시코 시티

2) 메스티조 이념이 새로운 민족 개념으로 정립된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졸고(1999)의 129-130을 참조하시오.

를 넘어서면 어디나 시골”(Fuera de México, todo es Cuatitlan)이란 말이 보여주듯이 시티는 근대성을 담지한 공간으로 특권화된 지위를 누렸다(Lomnitz 1998: 25-6). 민족문화 생산에서 나타난 농민 문화적 요소는 기껏해야 수입대체산업화 시기에 나타난 이촌향도형 이민 현상에 의해 유입된 농촌의 감수성이었을 뿐이고 그것도 근대화된 도시에서는 잃어버린 향수를 자아내는 복고풍에 불과했다. 당연히 이 시기의 민족문화란 지식인들의 머리에서 상상된 의례화된 문화적 생산물에 불과했던 것이다(Bartra 1991).

국가는 또 농민조직은 물론, 국영부문에 속하는 석유노조, 전화노조나 교원노조 등을 자신의 이념을 전파하고 구체화할 전도 벨트로서 여당의 공식구조 내부로 흡수하였다. 이로써 사회조직은 국가당 조직과 결합하게 되었고, 국가가 주도하는 근대화 프로젝트가 위로부터 사회 각 분야에 강제되는 메카니즘이 완성되었다. 멕시코 국가는 이러한 코포라티즘적 구조를 지닌 국가당을 건설하고, 이를 이념적으로 뒷받침하는 ‘국민단합’ 이념과 ‘혁명적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결합시킴으로써 난공불락의 국가통합프로젝트를 완성한 것처럼 보였다.

멕시코 민족주의는 1930년대의 사회개혁 조치와 더불어 수입대체산업화 시기의 보호주의 정책과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띠면서 발전하였다.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은 내수시장을 확장하면서 도시와 농촌간의 유기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국가통합 이념과도 궤를 같이 했다.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5-6%의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가속화된 근대화는 국가부문이 어느 정도 팽창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국가는 농지배분과 농산물 가격지지로 농민의 정치적 통합을 꾀했고, 코포라티즘적 노사관계를 확립하여 공식부문의 노동자들을 체제내화시켰다. 또 기업부문에 대해서도 보호주의 장벽이 제공하는 안정적 축적 조건을 통해 타협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정치 엘리트에 대해서는 단일제 대통령 제도와 엘리트 순환을 내걸어서 정치적 안정을 꾀했다(이성형 1998, 제4장).

이런 맥락에서 혁명 이후 멕시코국은 통합되고 동질적인 메스티조 민

죽 개념으로 자기동일시하면서 근대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관차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즉 국가는 곧 민족과 동일시되며, 나아가 근대성 그 자체를 표상하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멕시코 민족주의는 바로 국가가 생산하는 하나의 헤게모니적 이념으로 굳어졌고, 그 내용은 대체로 혼합경제체제(“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아닌 제3의 길”), 사회보장과 단합(“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단합하자! La unidad a toda costa!”), 자립적 대외정책(“제3세계주의적 지향”), 지속적인 개혁(la Reforma)을 통한 혁명의 완성 등을 창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가의 헤게모니적 이념은 1982년 외채위기가 가시화 되어 발전모델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대재생산 되었다. 물론 1968년 학생데모에 의해 ‘멕시코 혁명의 이데올로기’가 도전을 받기도 했지만, 국가주도의 근대화 이념을 창달하는 민족주의적 담화는 1970년대에 들어와서도 에체베리아 대통령 시절에 더욱 기승을 부렸다. 그러나 이러한 ‘혁명적 민족주의’ 이념은 비대한 국가 부문을 근본적으로 수술할 것을 강요한 외채위기에 의해 변화를 강요당하게 된다.

(2) 개방화와 민족주의의 위기

1970년대 후반 로페스 뽀르띠요 대통령 시절에 추진된 ‘경제의 석유화’ 프로그램에 의해 과도한 외채부담을 안게된 멕시코 정부는 1982년 여름에 외채 모라토리움 조치를 선언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다급해졌다. 정부는 IMF와 마라톤 협상 끝에 기술관료들과 기업인들이 요구한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고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경제개혁에 나서게 된다. 새로운 정책기조로 지난 40년간 지탱해온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은 포기되었다. 정부는 외부의 압력으로 기존의 보호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개방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88년에 정권을 이어받은 살리нас 행정부는 전임자가 추진해오던 개방화와 구조조정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였다. 이제 멕시코 경제는 과거처럼 미국에 ‘조용하게 통합’(silent integration)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북미자유무역협

정과 같은 ‘강령적인 통합’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이성형 1998, 제2장).

대외개방을 지향한 구조조정과 안정화 정책으로 멕시코 국가의 공식담화인 ‘혁명적 민족주의’ 담론이 재생산되는 양식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첫째, 내수시장을 보호하고 타자와의 거리를 강조하는 ‘반외세 민족주의’ 내지 ‘우리식 000’ 슬로건은 대외개방을 통해 가속화되는 타자와의 거리 상실에 의해 그 위력이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대외개방을 통해 물밑 듯이 쏟아지는 양질의 미국 상품과 전파 매체, 이를 타고 자연스럽고 침투하는 문화상품의 범람도 멕시코 사람들의 정체성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둘째, 1980년대 들어와서 가속화되는 멕시코의 대미정책의 변화와 이에 따른 지경학적 특성의 변화는 대미 의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수출지향 산업화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멕시코 정부는 전통적으로 미국에 대해 취해왔던 대결적인 대외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미국과의 상호의존성을 강화시키려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특히 멕시코 경제의 북미지향화(흔히 ‘대륙지향화’continentalization로 불리기도 한다)는 멕시코의 중심부와 북부의 중심축을 미국 남부와 서부 경제권과 연결시키는 전략으로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을 미국의 기술과 자본과 결합시키겠다는 ‘마quil라도라화’(maquiladorization)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수 있다(이성형 1999c). 당연히 이러한 영토적인 접합은 북부 국경지대의 미국화를 가져와서 멕시코 국가의 영토적 통일성은 물론 전통적으로 멕시코의 민족주의 담론이 지닌 통합주의적 가치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았다.

셋째, 국가주의적 발전전략이 파탄상태에 빠짐에 따라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후퇴 내지 축소 현상이 나타났고, 이제 시장주의적 접근이 교육과 문화 영역에서 일반화되었다. 이 때문에 그간에 국가의 해계모니적 담론을 생산해온 교육, 예술 분야의 지식인 사회는 국가의 지원 감축으로 다소 위축되었고 당연히 문화적 생산물의 규모도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공백은 텔레비사(Televisa)와 같은 거대한 매스미디어 업체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워지지만, 교육과 문화 분야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는 매우 제한되어 있기에 1980년대이래, 특히 북미자유무역지대 출범 이후 ‘민족문화’의 생산은 사실상 텅빈 공간 상태로 남게 된다 (Sanchez Ruiz 1998).

넷째, 1940년대 멕시코 정부가 추진해온 지역간 균형 발전 프로젝트로 인해 사실 지방들의 독자적인 발전이나 반란은 효과적으로 차단되어 왔지만, 멕시코 시티 외부에도 새로운 발전의 축이 형성되었다. 1982년에 가시화된 국가의 재정위기로 인해 중앙정부는 스스로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는데, 각 지방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가속화되는 선거반란으로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는 당연히 멕시코 시티 중심의 민족문화 생산과 재생산에 영향을 줄 것인데, 단일화된 멕시코 이미지에 다양한 지방색을 첨가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진행된 개방화와 신자유주의적 국가개혁은 결국 수입대체산업화 시기에 형성된 민족주의 담론과 기능적으로 상충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당연히 사회 각 부분은 이러한 기능 부조화를 극복하고 새로운 민족주의 담론을 생산하고자 골몰하게 되었다. 새로운 민족주의 담론을 생산되는 장은 과거의 국가중심적, 멕시코 시티 중심적, 통합주의적 특성이 해체되면서 열린 개방된 공간에서 다양한 세력들 사이의 투쟁과 갈등으로 점철된다. 우리는 ‘민족주의의 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 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편의상 이를 둘로 나누어서 위로부터의 대응과 아래로부터의 대응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하지만 민족주의의 위기에 대한 다양한 대응방식을 살펴보기 전에 멕시코 사회에서 민족주의 위기 논의가 표출되는 몇 가지 에피소드를 살펴보기로 하자.³⁾ 이 에피소드들은 멕시코 사회에서 ‘민족’ 문제가 처해있는 복잡한 성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3) 필자는 1985년 2월 이래 2,000년 3월 현재 평균 2년 정도 간격으로 7차례 방문하였다. 여기에 쓴 에피소드는 지난 15년간의 멕시코 사회의 변전을 나름대로 관찰한 것으로 향후의 논의를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삼입하였다.

3. ‘민족 정체성의 위기’?: 몇 개의 에피소드

멕시코 사람들에게 민족주의 내지 ‘민족 정체성의 위기’를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가우뚱하는 표정을 짓는다. 거리의 사람들이나 식자층에 이르기까지 최초의 반응은 “위기는 무슨 위기?”하고 되묻는다. 모두들 멕시코인으로서 자부심이 대단하기 때문이다. 폴레히오 데 메히코의 사회학자 프란시스코 사빠따 교수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이 통과된 뒤 이루어진 필자와의 대담에서 멕시코의 문화적 민족주의의 뿌리는 깊고 멕시코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대단히 명확하기 때문에 결코 북미 사회에 근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1994년 8월, 필자와의 대담).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현상은 매우 많다.

그 중에 들 수 있는 하나는 ‘축구 민족주의’ 열풍이다. 1992년 세계 월드컵 대회 당시 본선 경기가 한창 진행될 때 필자는 멕시코 시티를 방문하면서 자료수집을 하고 있었다. 더운 여름날 저녁에 식사를 하려고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엄청난 인파와 차량 혼수를 만나게 되었다. 저녁 6시 즈음에 이르자 멕시코 시티 전역은 아예 교통 마비 상태로 빠져 있었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끌고 나온 차량의 경적 소리와 노래 소리, 구호소리로 시가지는 온통 축제 분위기였다. 어린이부터 노인네에 이르기까지 얼굴에는 멕시코 국기의 삼색 무늬를 칠하고, 모두들 차량 위로 올라가 “비바 메히코!”를 외쳤다. 구호에 맞추어 차량들은 경적을 울렸고, 걸어 가던 사람들도 목이 쉬도록 외쳤다. 이탈리아와의 대전에서 멕시코가 1-0으로 이겼다는 것이다. 아수라장같은 축제분위기는 결국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수그러들었다. 시내에는 거나하게 취한 사람들이 삼삼오오 무리지어 다니면서 축제 분위기를 만끽했다. 그나마 차량소통이 되기 시작해서 시내 중심지인 소나 로사(Zona Rosa)로부터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오니 새벽 4시가 되었다.

1997년에 이루어진 일간지 『모니토르』지의 서베이 조사⁴⁾에 의하면 멕시코인들은 국민적 정체성에 관한 한 자부심이 대단한 것으로 나왔다.

“멕시코인으로서 자부심은 어느정도인가?”란 질문에 “매우 강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응답자의 76%, “어느 정도 지니고 있다”가 17%나 되었다. “별로 자랑할 것이 없다”와 “전혀 없다”는 각각 3%, 4%에 불과했다⁴⁾. 이런 데이터만 보면 민족 정체성의 위기란 탁상공론처럼 보인다.

그러나 동일한 서베이 자료 안에 이러한 자료들을 반증하는 데이터도 적지 않다. 위에서 인용한 서베이 설문 중에는 “만약 당신에게 자원과 기회가 주어진다면, 외국에 생업에 종사하면서 살아가겠는가?”라는 질문도 있었다. 놀랍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살아가겠다는 응답자가 40%가 되었다. 특히 응답자들 대부분은 대체로 사회경제적으로 중간계층과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고 연령별로는 주로 젊은 층이 많았다. 반면 57%는 가지 않겠다고 대답했는데, 이들은 주로 민중계층에 속한 부류가 주류를 이루었다(Gutiérrez Vivo 1998: 30, 157). 1990년에 이루어진 다른 조사(Enrique Alduncin의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20-30%가 차라리 미국에 태어났으면 하고 응답했다고 하는데, 이경우에도 고소득층과 젊은 연령층이 많았다고 한다(Gutiérrez Vivo 1998: 31에서 재인용). 또 응답자들의 대답에서 외국의 영향이 사회 전반에 침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음악과 예술 분야(80%), 커뮤니케이션 매체(72%), 관광과 오락(68%), 음식 습관(65%), 음주와 마약복용(65%), 경제(64%) 등에서 응답자들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대답했다(Gutiérrez Vivo 1998: 126). 분명히 멕시코 사회에는 과거 집권여당이 주도했던 반외세적 혁명적 민족주의 담화의 흔적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민족주의의 위기 내지 민족 정체성의 위기는 바로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 잘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는 예가 하나있다. 북미 자유무역협정이 통과될 당시부터 시작되어 몇 년간 끈 논란이 하나있다. 멕시코 시티에 진출할 예정이었던 타코 벨(Taco Bell)이 과연 멕시코 사

4) 이 조사결과는 멕시코 대표적인 사회과학자들의 분석과 함께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José Gutiérrez Vivo(coord.), *El otro yo del mexicano*, México: Oceano, 1998.

5) Gutierrez Vivo coord., op.cit. p.155.

회에 뿌리를 내릴 것이냐 하는 논란이었다. 멕시코 음식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따꼬 시장을 미국화된 타코가 뚫어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별로 재미를 보지 못했던 미국계 패스트 푸드 체인처럼 조용히 사라질 것인지 하는 것이 논쟁의 초점이었다. ‘음식 민족주의자’들은 당연히 멕시코 따꼬 맛에 길들여진 대중들이 맛있는 미국 타코 맛에 결코 물들지 않을 것이며 결국 타코 벨은 1-2년도 못 버티고 철수할 것이라고 그렸고, 위의 사빠따 교수도 이런 입장에 동조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뒤에도 타코 벨은 살아남았다. 그로부터 몇 년 뒤 필자는 멕시코 시티의 거리에서 타코 벨 체인점 앞에서 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줄을 쳐다볼 수 있었다. 이 타코 벨 논쟁을 조사한 미국의 한 인류학자에 의하면 타코 벨의 음식은 멕시코 중상류층이 선호하는 기호식품으로 미국화를 추구하는 신분 과시용으로 정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중계급이 밀집해 사는 바리오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타코 벨 음식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이 포착된다고 한다.

민족 정체성 내지 문화의 한 편린을 보여주는 위의 네 가지 에피소드는 현단계 멕시코 사회에서 민족주의의 위기, 내지 민족정체성의 위기를 논의하는 하나의 화두로 이용할 수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예는 한 민족으로서 유대감 내지 정체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세 번째와 네 번째 예는 그러나 정체성이 연령별로(내지는 세대별로), 사회경제적 계층별로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물론 필자가 언급하지는 못했지만 지역별로도 정체성 의식이 큰 차이가 있다). 이 네 가지 에피소드를 종합한다면 멕시코인으로서는 높은 자부감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대미의식 등)들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여기서 우리는 1970년대까지 유지되어온 국가주도형 이념으로서 민족 정체성이 1980년대에 들어와서 큰 변화를 겪었으며, 그러한 변화가 사회경제적 계층별로, 연령별로 다른 방식으로 인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지난 20년간 변화해온 정체성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논의

를 총체화하기보다는 사회경제적 계급별로, 엘리트(내지 국가)와 민중으로 대별하여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논의의 편의상 위로부터의 대응과 외부로부터,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대응을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4. 새로운 국민적 정체성 추구(1): 위로부터의 대응

외채위기로 야기된 국가의 재구조화 전략은 당연히 새로운 담론 정치를 배태시켰다. 미겔 텔 라 마드리드 대통령부터 현단계의 세디요 대통령에 이르는 18년간은 대외 경제개방과 대미 접근,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는 개혁 정치로 점철되었다. 수입대체 산업화 시기 보호주의와 내수시장을 매개로 작동한 담론 정치의 핵심적인 구호들인 “혼합경제” “국민단합” “사회보장” “제3세계와의 연대”와 같은 슬로건은 이제 “생산성” “국제경쟁력” “국제기준” “TQC” “시장주의 접근” “기술 근대화”와 같은 담론으로 대체되었다. 1980년대 후반까지 정부와 제도혁명당의 연설문에는 “혁명”이란 용어가 상투어로 빈번하게 보였지만 80년대 말부터 점차 이 용어는 공식문서에서 추방되었다.

개방과 신자유주의 개혁 정책을 가장 과격하게 추진한 살리나스 행정부(1988-1994)의 6년 동안 담론 정치의 변화는 명확했다. 그는 “혁명”이란 수사대신 “근대화”란 용어를 즐겨 사용하였다. “개방”과 “경쟁력”과 “생산성” “제1세계”와 같은 언어들 이 살리나스의 연설문에 단골메뉴로 등장했다. 그에게 공기업은 “비효율성”과 같은 의미를 지녔다. 자신의 임기 동안 대부분의 공기업을 매각하여 “시장”을 통한 “경쟁력”과 “효율성”을 배양하고자 했다. 그는 농촌의 발전과 농업 생산성을 저해한다고 믿는 ‘에히도’ 제도를 민영화하고자 헌법 제27조를 개정하였다. 멕시코 혁명에서 분출된 농민들의 토지에 대한 욕구는 이제 “농업 생산성”이란 잣대에 재단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났다. “국가와 농민의 역사적 연

대”는 이로써 깨어졌다. 마지막으로 그는 멕시코 경제를 미국과 자유무역으로 묶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오랫동안 공들여 온 대미 접근 전략을 완결지었다. 이제 멕시코는, 살리나스에 따르면 “제1세계화”(primermundialización)의 기로에 서 있었다. “불쌍한 멕시코, 그대는 하느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미국과는 너무 가까이 있구나” 하고 탄식했던 혁명 전 보르피리오 디아스 대통령의 녀두리는 살리나스에 의해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까? “행복한 멕시코,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미국에 가까이 있어서 천만다행이구나.”

이러한 개혁정치를 이념적으로 선도할 이데올로기로서 살리나스는 “사회적 자유주의”(liberalismo social)을 내세웠다. 제도혁명당은 기존의 당 강령에 규정된 ‘혁명적 민족주의’를 삭제하고, 전능한 대통령이 지시한 사회적 자유주의 담론을 새로운 당의 이념으로 재정립했다. 이 이념은 “시장 지상주의”를 완곡어법으로 표현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했다. ‘사회적’이란 용어는 코포라티즘적 유산을 안고 있는 멕시코 권력구조의 특성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정한 고려를 하겠다는 의사 표시 이상이 되기는 힘들었다.⁶⁾ 이 자유주의는 특히 정치적 자유주의 원리와는 거리가 멀었다. 제도혁명당의 민족적 개혁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당에 대한 대통령의 권력을 극대화하는 조치만 내내 시비와 논란거리를 만들었을 뿐이었기 때문이다(이성형 1998 제4장).

경제적으로 이 시기의 담론을 지배한 용어는 “국제경쟁력”과 “생산성”이었다. 이제 수출산업화가 지상목표로 설정되었기에 국제시장에서 우위

6) 코포라티즘적 권력구조는 바로 이러한 시장주의적 개혁 전략과 기능적으로 양립 불가능했지만 시장 개혁이 가져올 선거정치에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실상 개혁할 수 없었다. 여전히 “국가와 노동의 역사적 연대”가 엘리트 내부에서 받아들여졌지만, 이제 국가가 노동부문에 물질적으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었다. 노동부문의 엘리트(노동귀족, 노동관료제)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기에 기층부문의 경제적 후퇴를 감수하면서 코포라티즘 체제에 안주하려 했다. 이들의 담론은 1930-40년대의 슬로건 정치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언어들은 현실적인 의미를 상실한 사어에 불과했다.

를 유지할 생산성 규범이 무엇보다 급선무였다. 살리나스 행정부 시절 정부는 여러 차례 노사정 삼자 협약의 형태로 “생산성 협약”을 맺을 것을 종용했다. 국가와 대기업들은 이점에서 의기투합했다. 이제 노동자가 받을 임금은 “생산성 임금”이었다.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TQC”와 “생산적 기업 문화”를 창달할 것을 구호로 내걸었다. 기업들은 갑자기 돌아선 일본의 품질관리기법과 다양한 경영기법을 유행처럼 복제하고자 했다.

그러나 국제화 내지 세계화된 생산 규범을 멕시코 기업들이 내면화하기에는 너무 간극이 컸다. 소수의 대기업들이나 마길라도라에 투자한 다국적 기업들만이 이러한 구호와 생산과정을 조화시킬 수 있었다. 다수의 대기업과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국제적 기준”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형편이 초라했다.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국가의 보호 없이는 살아남기 힘들었고, 지방적 전통과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근대성과 세계화에 대한 열망은 이들에게 그야말로 희망사항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대외개방으로 국내시장에 홍수처럼 밀려들어오기 시작한 상품 문화는 적어도 그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상류층과 중상류층에게는 미국화를 부추겼다. 상류층은 이제 별로 거리낌없이 미국화된 생활 스타일을 즐겼다. 상품 소비 문화에서 교육에 이르기까지 조용히 상류층과 권력 엘리트층은 미국의 라이프 스타일에 동화되어 갔다. 미겔 텔라 마드리드 대통령은 시절부터 핵심적인 기술관료층은 대체로 미국의 아이비 리그 출신들로 채워졌고, 이들은 곧 새로운 권력 엘리트의 핵심으로 부상하여 멕시코 미래 세대에게 하나의 아이콘을 제공했다. 젊은 세대들은 구세대와 달리 프랑스, 영국, 독일로 유학하기보다는 모두 미국의 동부와 서부의 명문대를 선호했다. 햄버거,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체인점들과 월마트와 같은 미국 유통체인이 점차 대도시의 주요가도에서 점포를 확대시켜 나갔다. 중상류층에게는 유아 교육부터 영어로 하는 새로운 열풍이 불었다. 2000년 대통령 선거전에서 제도혁명당의 대통령 후보인 프란시스코 라바스피다는 이런 분위기에 동조하여 “자신이 당선되면 초등학교에서부터 영어

교육과 컴퓨터 교육을 시키겠다”고 열변을 토했다. 비판적인 식자층은 이렇게 되받아쳤다. “어린 학생들이 영양실조로 말라가고 있고, 멕시코 시티에만도 4만 명의 걸식아동들이 도시를 방황하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거야?” 라바스따다의 영어 조기교육 공약은 그 뒤로 슬그머니 텔레비전 화면에서 사라졌다.

엘리트의 미국화, 국제기준과 생산성과 같은 근대성 규범에의 강조, 코포라티즘을 대체한 자유주의적 가치의 창달을 주창한 신자유주의 국가의 담론정치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 그 한계는 두 가지 차원에서 포착된다. 첫째, 새로운 담론인 “경쟁력” “국제적 기준”과 같은 슬로건과, 여전히 후진적인 부문들이 다수를 이루는 멕시코의 현실 사이에는 너무 나 큰 간극이 있었다. 무엇보다 엘리트들이나 대기업조차도 이러한 담론을 그대로 수용하기 힘들었고, 또 이에 접근한다고 해도 세계시간과는 큰 시차가 있었다. 아무리 국제경쟁력을 외친다한들 극소수의 기업들을 제외한 다수가 이를 이룰 수 없는 현실은 새로운 담론 정치의 효율성을 크게 훼손시켰다.⁷⁾

이러한 근대화를 추구하는 담론정치와 후진적인 현실 사이의 간극을 비꼬아서 인류학자 로헤르 바르트라는 ‘데스마더리즘’(desmotherism)이라 불렀다. 데스마더리즘은 스페인어의 ‘데스마드레’(desmadre)와 결코 달성되지 않는 근대성에의 열망(modernism)을 함께 표현하는 합성어이다(Lomnitz 1998: 21). 바르트라를 멕시코 사회의 지식인들에게 만연해 있는 포스트모더니즘 열풍을 한편으로 비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관료들이 즐겨 사용하지만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근대화에 대한 과도한 정열을 이 한마디로 따끔하게 풍자한다.

두 번째 포착할 수 있는 한계는 더 이상 대중들이 국가가 내뿜는 담론 정치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1982년 이후 성립된 신자유주의 국가는 수입대체 산업화 시기에 형성된 “국가 = 민족 = 근대

7) 여기서 소위 ‘나코 민족주의’(naco nationalism)가 탄생한다. ‘나코’ 현상에 대해서는 롬니츠의 탁월한 분석(Lomnitz 1998: 21-25)를 참조하시오.

성”라는 등식을 해체시켜 버렸다. 이제 기술관료들의 프로젝트를 대중들은 더 이상 자신의 이해(“국가이익” “국민적 이익”)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치아빠스의 인디오들은 기술관료들의 예히도 민영화 계획을 500년 전의 스페인 정복자들의 침략과 동일한 선상에서 파악하고 무기를 들고 저항을 했다. 특히 국민 다수는 정부 전반에 만연해 있는 부패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는 곧 도적떼”들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당연히 국가의 담론 정치의 효율성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 후반부터 제도혁명당의 정치적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고 야당들의 각개약진이 두드러진 데서도 잘 드러난다.

5. 새로운 국민적 정체성의 추구(2): 아래로부터, 외부로부터의 개입

멕시코 혁명이후에 건설된 국민국가가 주도한 ‘혁명적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는 1940년대에 들어와서 다니엘 꼬시오 비에가스가 “혁명의 죽음”을 이야기한 이후 1968년 학생데모대에 의해서 심각한 도전을 받았지만 관성에 의해 1982년 외채위기가 터질 때까지 헤게모니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이념은 개방과 발전모델의 변경으로 지배집단에 의해서조차 그 효능을 의심받았고, 시민사회의 여러 섹터들은 이 이념을 대체할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다. 지난 20년간의 멕시코 정치와 사회는 중앙집권주의에 대항한 신연방주의를 모색하는 ‘지방의 반란’, 제도혁명당의 일당지배 체제를 민주화시키려는 야당들의 각개약진, 메스티조 민족주의가 강제한 통합(incorporation) 정책에 저항하는 인디오들의 무장반란, 확실적인 제도권 문화에 저항하는 젊은 세대의 외침 등으로 점철되어 왔다.

특히 지난 반세기 동안의 산업화의 결과로 진행된 도시화와 매스 미디어

어의 보급, 그리고 인구구성에서 청년층의 비중이 늘어나고, 국내외의 유동인구가 급증한 결과로 민족 정체성이나 민족 문화도 여러 측면에서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비록 불충분한 근대화였지만) 근대적 도시문화에 포섭된 인구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과거 시대 사람들이 민족주의 내지 민족 정체성에 대해 지니고 있던 맹목적이고, 종교적인 태도는 보다 세속적이고 계산적인 도시문화에 중화되어 버리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온 제도혁명당과 집권여당의 유기적 지식인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공식민족’(la nación oficial)과 ‘민족문화’(la Cultura Nacional)은 해체될 수밖에 없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헤게모니적 문화 내지 정체성이 약화되어 가는 가운데 새로운 민족 정체성을 구성하게 될 시민사회의 각 층위에서 분출되는 아래로부터의 압력들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1) 북부인의 정체성 변화: “탈멕시코화”?

독립 이후 멕시코는 방대한 영토를 가진 국가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지방들의 집합물이었다. 물론 멕시코 시티는 코르테스 이전부터 메소아메리카 문명의 ‘배꼽’으로 주변 지역들로부터 공납을 받는 메트로폴리스 역할을 했지만, 주변 지역들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었다. 지방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바탕으로 독립된 정체성을 유지했던 것이다.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온 이후에도 각 지방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해나갔고, 독립 이후에도 이러한 지방주의는 견고하게 유지되었다. 중앙에 의한 지방의 포섭은 벨르피리오 디아스 대통령 시절에 시작하여 혁명 이후 정권에서 완벽하게 완성된다. 혁명 이후 국가는 지방들을 모두 멕시코 시티에 수직적으로 연결되는 권력의 네트워크로 묶어내어 사실상 멕시코 지방의 ‘아스떼까화’(aztequización)⁸⁾를 가져왔다. 사실 혁명 이후 국가가 누린 반세기의

8) 아스떼까화는 모든 지역의 유기적 통합을 의미하는 ‘멕시코화’가 아니라, 멕시

안정성은 바로 이 지방주의 내지 지역주의를 탈정치화시키고, 권력을 멕시코 시티 한 곳으로 집중시킨 데 있었다(Zepeda 1992: 513).

1980년대부터 두드러진 변화 중의 하나는 멕시코 시티 중심의 중앙집권주의적 연방주의에 대한 ‘지방들의 반란’이 분출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⁹⁾ 국가의 재정위기로 더 이상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이 원활하지 않는 마당에 중앙의 권력의지에 지방권력이 그대로 순응할 까닭이 없다. 지경학적으로 보면 센터(el Centro)의 무능이 드러났고, 더 이상 전국토를 통합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 반란’은 지방 자체의 공격적인 의지의 산물이라고 보기보다는, 중앙의 방관 상태에서 스스로 자구노력을 추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Hierneaux Nicolás 1998: 102).

더구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 가속화된 멕시코 경제의 대륙화 현상으로 인해 북부 국경제주는 미국 남서부 경제권에 기능적인 방식으로 편성된 새로운 영토적 비교우위 시스템에 포섭되었다. 비록 종속적 도시화를 매개로 한 것이지만 북부의 국경제주들은 마길라도라 공단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멕시코 지역간의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미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커진 이 국경지대의 인구는 지난 10년 동안 700만 명에서 1,200만 명으로 급증했고, 현재의 경향이 유지된다면 향후 10년 내에도 인구가 2배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미국인들과의 빈번한 접촉이 가져온 다양한 혼합문화(cultural hybrid)나 영어와 스페인어가 혼합된 에스판글리쉬(espanglish)의 탄생에서 보듯이 멕시코 문화의 미국화 현상도 자주 지적된다. 이 국경민(fronterizo)들은 1980년

코 시티 중심주의로 귀착되고 말았다는 의미이다.

- 9) 이러한 분출에 동조한 주들은 국경주들 외에도 할리스코, 과나후아토, 유카탄 등이 호의로운 관찰의 대상이 되나, 여기서는 상세히 언급하지 않겠다. 할리스코나 과나후아토는 멕시코 혁명에 저항했던 프리스페로 반란의 중심지였고, 유카탄주는 마야 문명의 흔적이 남아있고, 바닷길로 미국경제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대의 이러한 변화에 고무되어 점차 중앙과는 다른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국경인들의 반란’(fronterizo)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첫째 자신들의 소득을 빈한한 남부 제주의 개발분담금으로 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를 외치며, 자신들의 세금은 열악하다고 생각하는 자신들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쓰여져야 한다고 외친다. 이러한 것은 바로 북부 국경 제주의 투표경향에서 잘 나타난다. 치와와, 바하 칼리포르니아, 누에보 레온, 꼬아우일라 등과 같이 국경주들과 주요도시에서 제도혁명당에 대한 지지가 퇴조하고, 보수야당인 국민행동당(PAN)에 대한 지지도가 크게 증가한 것은 바로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멕시코 시티의 사람들(chilangos) 다수나 중도좌파적 지식인들은 ‘북부의 탈멕시코화’(desmexicanización de la norte)라 부르며 우려의 눈길로 바라본다¹⁰⁾. 따꼬를 옥수수 전병이 아닌 밀 전병으로 먹고, 란체라 음악보다는 재즈나 록 음악을 즐기며, 가족 패턴도 미국처럼 핵가족 시스템으로 편성된 이 곳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확실히 누가 보더라도 멕시코의 중부와 남부와 비교하면 미국화된 것은 틀림없다. 그래서 곧잘 북부 국경제주의 경제적 종속이 바로 이 지역사회와 문화를 탈멕시코화시키고, 나아가 “미국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국민행동당의 지지자들로 탈바꿈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국경제주가 탈멕시코화되고 있다는 тезис는 몇 가지 따져보아야 할 점이 있다.

먼저 국경인들의 반응부터 살펴보자. 국경인들 다수는 자신들이 여전히 멕시코인으로서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미국의 침투에 일종의 ‘방어벽’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다. 더구나 북부 경제권에 미국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비즈니스 세계는 오히려 멕시코 스타일이 강화되고 있으며, 오히려 멕시코 지방 문화의 리바이벌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멕시코 시티에 사는 ‘칠랑고’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더

10) 대표적인 논자로는 호르헤 가스파네다(Castaneda 1986)를 들 수 있다.

뽀초(pocho)적이라는 것이다(Javier Guerrero 1990: 140). 반면에 미국과 미국문화에 대한 국경인들은 태도는 보다 실용주의적이며, 이들은 국경 너머 존재하는 것들을 “하나의 문제거리이자 동시에 기회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미국을 항상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좌파나, 너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매스미디어나 그 수용층에 비하면 국경인들은 이에 관한 한 중도파라는 것이다(Bustamante 1996: 48).

이 분야에 오랫동안 연구를 수행한 호르헤 부스따만테는 국경지대의 ‘탈멕시코화’ 내지 ‘아메리카화’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통상 ‘탈멕시코화’ 내지 ‘아메리카화’란 국경도시들에 관한 한, 코스모폴리타니즘에 다가간다는 의미와 유사하다. “코스모폴리타니즘은...다른 언어들을 내면화하거나 이방 문화를 즐기지만 반드시 자신의 종족적 정체성을 희생시키지는 않는다”(Bustamante 1996: 50). 예컨대 미국 문화나 언어와 결합된 혼합의 국경 문화가 있다면 그것은 멕시코인으로서 국민적 정체성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존재할 수 있는 하위의 정체성(subidentity)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띠후아나(Tijuana)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 샌디에고와 인접해 있는 이 도시는 여타 멕시코의 지방도시와는 달리 농업적 기반이 전혀 없는 서비스 중심지였다. 국경도시의 특성상 기회를 찾아든 온갖 지방의 이민들로 이 도시의 인구는 급증했고, 그 결과 가족구조도 다른 지역의 ‘확대된 가족’(extended family) 구조와는 달리 핵가족의 특성을 갖게 되었다. 핵가족 구조로 인해 소득의 분할도 제한되니 당연히 사회적 신분 상승(social mobility)의 가능성도 확대된 가족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다. 이런 연유로 띠후아나의 계급구성은 ‘불규칙한 오각형’의 모습을 띠고 있다. 말하자면 중간계급의 기반이 넓고 극빈층의 구성비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위에서 논의한 탈멕시코화나 아메리카화는 바로 중간계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관찰된 현상으로 이들의 가치관이 멕시코 내지인들과는 달리 보다 코스모폴리타니즘적이고, 보편주의적이자 개인주의적으로 변한

것을 의미한다. 국경인들이 제도혁명당에 반대하나 중도좌익 야당인 민주혁명당에 표를 던지지 않고 보수야당인 국민행동당을 지지하는 것도 바로 이 중간계급적 특성에 연유한다. 요컨대 국경인들은 ‘그링고화’(agringado)된 것이 아니라 보편적 중간계급으로서의 특성을 지닌 것이다(Bustamante 1996: 51-2). 부스따만페의 논의는 자칫 흑백논리로 치닫기 쉬운 “국경지대의 미국화” 논의를 비교적 충실한 사회학적 근거를 제시하여 국경지대는 여전히 멕시코의 일부이며 국경인들의 국민적 정체성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밝혀 주었다. 사실 미국의 학자들이나 남부인들은 멕시코인들의 우려와는 달리 미국의 남부가 멕시코화(Mexicanization of American South)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로스엔젤리스는 이미 “라티노의 수도”가 되었다고도 개탄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앵글로 아메리카의 정체성이 이 지역에서도 확고함을 잘 안다.

그렇다면 국경인들의 정체성 변화가 국민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이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멕시코의 국민적 정체성에 미국과 미국문화가 주는 화두를 논의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선거정치를 보다 민주화시켜 멕시코 정치의 근대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북부 국경인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철저히 챙기는 미국적 사고방식과 미국식 민주주의에 자주 접한다. 다수의 중간계급들은 이 방식이 멕시코 시티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협잡보다 우수하다고 믿는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보수야당 국민행동당에 대한 지지표를 계속 던지고 있다. 이 결과 북부 국경도시와 제주의 지방정치는 1980년대 이전보다 훨씬 민주화되었고,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투입과 지방정부의 산출이 선거를 통해 제어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또 국경인들의 야당 지지는 제도혁명당의 권력독점에 체통을 건 촉매제가 되었고, 수도와 여타 지방의 성원에 힘입어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행동당 후보 비센테 폭스의 당선시킬 수 있었다.

둘째, 북부 지역의 선거반란은 바로 새로운 지방주의(localismo)를 여는 촉매제가 되었다. 사실 중서부 지역의 몇몇 주(할리스코, 과나후아토),

유카탄 등의 주에서도 과거보다는 훨씬 중앙으로부터 독립된 지방의식이 강화되고 있다. 확실히 1980년대 이후에는 혁명 이후 억압된 독자적인 지방문화도 활성화되고 있다. 이는 혁명 이후 ‘아스떼까화’된 일원적 민족적 정체성을, 다양한 지방문화의 복원과 활성화를 통해 진정한 ‘멕시코화’로 나아가는 하나의 교두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인디오 공동체의 요구: 융합적 민족에의 갈망

멕시코 시티의 인류학 박물관은 그 규모나 세련미에서 건줄 때에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한다. 멕시코에서 인류학과 고고학은 다른 중진국과 달리 좁고 배고픈 학문이 아니라 이미 비대한 몸체를 가지고 있다. 오래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고고학자들은 발굴에 여념이 없고, 인류학자들의 저작도 여전히 풍부하게 생산된다. 둘 다 찬란했던 과거 인디오 문명사를 복원하거나, 원주민 연구를 통해 멕시코 민족의 위대함을 보여주는데 일조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쟁력의 측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관광산업의 발전에도 기능적이다. 그렇기에 두 학문 모두 ‘공식적 민족주의’의 성장세에 큰 덕을 입었던 것이다.

멕시코인들에게 인디오는 두 가지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하나는 관광자원으로 현대인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사라진 문명의 후손들이다. 이 ‘죽어있는 인디오’(indio muerto)들은 인류학 박물관을 위시하여 각 도시의 지방박물관들에 곱게 모셔져 있다. 1990년에 발표된 뽀다(Panda)의 연구에 따르면 인디오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4%인 1,200만 명 정도가 되며 이들은 56개나 되는 인디오 어족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한다(Zúñiga 1998: 247).¹¹⁾ 이들의 수공품과 그들의 선조들이 건설한 피라미드, 그리고 멋진 해변이 오늘날 멕시코가 벌어들이는 엄청난 관광수입을 보장하는 것이다.

11) 그러나 인디오 인구의 숫자를 줄이고 싶어하는 정부 관변기구(INI)의 통계치는 1990년 경우 641만명에 불과하다(Stavenhagen y Carrasco 1997: 267).

인디오들이 멕시코 민족에게 던지는 또 다른 하나의 이미지는 과거 찬란한 문명을 대변하는 종족으로 ‘우주적 인종’(raza cósmica)인 메스티조의 모성적 뿌리를 이루는 신화적 존재이다. 혁명 이후 탄생한 공식적 민족주의가 종족적 기반으로 내세운 것이 메스티조였다. 따라서 인디오는 스페인 정복 이전의 종족적 기원으로서, 환언하면 메스티사헤(mestizaje)의 모성적 뿌리로 받아들여졌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혁명 이후 지난 90년간 인디오들이 겪은 고난의 뿌리를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공식적 민족주의의 창설자들은 인디오를 ‘역사적 기원’으로만 인식했지, ‘살아있는 인디오’(indio vivo)들의 공동체를 멕시코 민족 내부에 어떤 위상으로 통합할 것인지는 고민하지 못했다. 이들이 만든 공식적 인디헤니스모는 메스티조의 통합주의 이념에 충실한 것이었고, 따라서 살아있는 인디오들의 정체성은 바로 이 통합(incorporation) 이념에 녹아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멕시코 민족으로서 인디오가 해야 할 일은 곧 스페인어를 배우고, 라디노의 문화를 즐기며 정부가 만든 ‘인디오재단’(Instituto Nacional Indígena)이나 전국농민연맹(CNC)에 참여하여 열심히 구호물자나 비료를 타내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살아있는 인디오들은 사실상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배제를 당했고 이등시민으로, 멕시코 국민에 포함되지 않는 이방인으로 격하되었다.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멕시코 만세!”를 외치는 공식담론은 바로 살아있는 인디오들에게 강요되는 정치적 침묵이 배후에 도사리고 있다(Bonfil Batalla 1996). 정교한 메스티조 담론과 통합 이념에서 사실상 인디오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야 하며 정치적으로 침묵을 해야만 이 인종차별적인 세계에서 생존할 수 있었다.

인디오들이 침묵을 깨고 본격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였다. 이들은 점차 “국가와 민족의 기원”이라는 신화를 깨고 “현대 국가의 일부”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민족구성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의 일부로 대접해 달라는 요구였다. 이러한 요구는 점

차 개별 공동체의 한계를 넘어서 지역적으로 전국적으로 결집되어 민족 내부의 '차이'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근대 국가 내부의 평등권 투쟁으로 발전했다. 아메리카 정복 500주년을 기념하는 1992년에 멕시코의 인디오들은 멕시코 시티에 모여 지난 500년간의 억압과 수탈을 성토했다.

이러한 저항의 절정은 1994년 1월에 터진 치아빠스 농민반란이다. 메스티조 민족주의가 공공연하게 자행한 억압과 배제의 논리에 치아빠스주의 인디오 농민들은 정초에 무장봉기로 대응했다. 살리나스 행정부가 북미자유무역협정의 타결을 염두에 두고, 농업근대화를 위해서 헌법 제23조를 개정하여 '에히도'의 민영화를 추진하자, 생계를 위협받는 인디오 농민들은 "이제 그만!"(Basta ya!)을 외치며 총을 들고 연방정부에 저항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이렇게 외쳤다. "우리는 지난 500년간 투쟁의 결실이다."

사빠띠스따들이 '선전포고문'에 밝힌 기본적 요구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1)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변혁을 실행할 것.
- 2) 인디오 원주민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
- 3) 공유지의 민영화를 허용하는 헌법 제23조의 개정을 취소할 것.

이들은 포고문을 통해 1982년 이후 실행된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을 부정함과 동시에 공식적 민족주의가 억압해 왔던 인디오 원주민 공동체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는 그야말로 선언문 공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장반란을 통해 개혁을 실현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점은 전쟁선언문이나 선전포고문 등에서 보여지듯이 이들이 종족적 정체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멕시코인으로서의 정체성(mexicanidad)을 앞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마야인이 아니라 멕시코 민족

의 일원으로 멕시코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들은 인디오의 자율성 투쟁을 민주주의와 시민권 투쟁이란 민주적 공화제의 틀 속으로 통합시켜 전국적 차원에서 새로운 정치적 공간을 열고 있다 (Leyva-Solano y Sonnleitner 2000: 188).

바로 멕시코 민족 속에서, 그리고 민주 공화제의 틀 속에서 자신의 투쟁을 접목시키는 이들의 담론 투쟁 방식은 결국 민족의 과거 역사를 재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혁명당 정권의 반민족적 성격을 비판하는 형식으로 전개된다. 즉 살리나스 행정부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된 신자유주의적 담론 정치를 근거에서 부정하는 근거를 바로 민족의 역사에서 찾고, 1917년 헌법의 전통에서 찾는다. 전쟁선언문에서 사빠띠스따들은 살리나스 정권을 뿌르피리오 디아스의 ‘과학적 독재’에 은유하며, 자신들을 비야와 사빠따의 정신을 계승하는 후예들로 계보화하고 있다. 반면에 형해화된 ‘혁명적 민족주의’ 이념조차 버리고 ‘사회적 자유주의’를 내세우며 국가 재구조화를 시도한 살리나스 정권을 “나라를 팔아먹는 자들”의 계보에 위치지운다. 이 선언문에서 사빠띠스따들은 제도혁명당에 의해 주조된 민족주의 이념이란 결국 매판적 이념과 실천으로 대체되었으니 새로운 전통의 민족주의 담론을 재구성해야함을 주장한다. 이로서 멕시코에서 민족주의 이념은 다시 한 번 담론정치의 장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이들이 멕시코 민족주의 논의에 제기하는 새로운 쟁점은 여러 가지이다.

첫째는 인디오와 같은 종족적 소수자의 권리를 다원주의 틀 속에서 보장해달라는 요구이다. 메스티조 민족주의처럼 배제적 논리가 아닌 융합적 민족주의를 재구성하자는 것이다. 사실상 혁명 이후 멕시코 근대국가가는 민족을 인벤션하기 위해 메스티조라는 주형에 기타 요소를 흡수시켰다. 소수자의 권리는 다수자를 위해서 희생되어야 했다. 그러나 끈질지게 자신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생존방식을 유지해온 인디오들은 이제 사빠띠스따들을 통해 ‘흡수’(asimilación)가 아니라 ‘유기적 통합’(integración)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제 박물관에서 뚜벅뚜벅 걸

어서 나와 맑은 공기의 대지 속에서 함께 숨쉬며 살아가고자 한다. 그것은 이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인디오 문명의 “존엄성”(dignidad)을 인정해주는 생활을 의미한다. 이들은 “죽어있는 인디오” 문명의 영화나 민예품 시장에서 팔려나가는 수공예품이 아닌 “살아있는 인디오”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자 한다. 라칸돈 정글에서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국민적 협약의 근본적(radical) 변화없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인디오를 정의와 존엄성을 바탕으로 민족(la Nación)으로 통합(incorporar)시키는 유일한 형태는, 그들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조직에 고유한 특징들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자율성은 분리가 아니다. 자율성은 현대 멕시코에서 가장 천대받고 잊혀진 소수자들을 통합(integración)하는 것이다. (EZLN, 1995: 190).

이러한 요구사항은 한 때 정부와 반군 사이에 이루었던 1996년 1월 16일의 산 안드레스 협정에서 받아들여져서 국회에 “인디오 민중을 위한 자유로운 결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송부하는 것으로 진전을 보기도 했지만, 결국 세디요 정부가 이 협정안을 백지화함으로써 정권교체가 될 때까지 진전이 없었다. 사빠띠스파들의 요구는 멕시코 민족의 구성에 다 민족적 성격을 인정하여 멕시코 사회에 만연된 인종주의적 편견과 그 실천을 제거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앞에서 살펴본 지방적 요구와 더불어 일원주의적 멕시코 민족주의를 해체하여 다원주의적이고 소수자 보호적인 융합적 민족주의로 나아가자는 강력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산 안드레스 협정은 그런 점에서 시민사회의 단체들과 교회를 포함한 폭넓은 층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¹²⁾

12) 물론 이런 견해를 “무책임하고 이상주의적이며 낭만적인” 경향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스페로 반란과 멕시코 혁명사 연구에 큰 기여를 한 바 있는 프랑스 출신 역사학자 장 마이어(Jean Meyer)는 한 대담에서 인디오 공동체의 자율성 주장은 “16세기의 ‘선한 야만’ 또는 프란시스코 수사들의 유토피아”로 돌아가자는 “데마고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나아릿의 산악지방에 있는 코라 공동체가 비(非)코라인 모두를 추방하고자 하고, 산 환데 차몰라의 우이출 부락에서 카톨릭을 믿거나 개신교를 믿는 우이출인을 관습을 해친다는 미명 아래 추방한다면, 그것은 곧 바로 “모든 멕시코인들의

두 번째로 제기되는 흥미로운 쟁점은 가부장적 국가의 실천으로 대표되는 멕시코 민족주의 담론에서 젠더 민주주의를 강하게 옹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멕시코 사회는 식민 시대 이전부터 최근까지 가부장적이고 남성위주의 문화와 제도를 유지시켜왔다. 따라서 여성은 국가로부터 공동체, 마지막으로 가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억압과 배제에 길들여져 왔다. 멕시코 혁명 이후에 나온 공식적 민족주의의 담론적 실천도 이러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멕시코의 역사를 형상화한, 공식적 민족주의의 역사 교과서라 할 수 있는 혁명백화도 모두 건국 영웅과 혁명가들의 영웅적 설화를 남근중심주의적으로 그리고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성들은 민초로만 그려져 있다.

사빠띠스마 민족해방군은 인디오 여성들에게 남녀 평등권을 명시한 ‘여성법’(la Ley de las Mujeres)을 공포하여 성차에 따른 차별을 일체 없앨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 법은 남녀 평등권뿐만 아니라 여성이 자신의 신체와 섹슈얼리티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통제하고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내용은 남성중심적인 인디오 사회뿐만 아니라 카톨릭 교회의 영향력이 큰 보수적인 멕시코 사회 전체에 주는 충격도 크다.

라모나 사령관을 위시하여 많은 인디오 여성들이 민족해방군에 참여하여 “타인을 위한 존재”(seres-para-los-otros)에서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 나아가 “타인을 위해 싸우거나, 죽는” 존재로 변신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사실 인디오 여성들은 종족, 계급, 젠더 온갖 측면에서 억압을 감내해야 했던 하위적 존재였다(Lagarde 1996: 90). 민족해방군에 참여한 이들은 결국 인디오 공동체 내에서 존재하는 여성적 억압을 제거하는 법률의 제정을 실현시켰다. 이 법률은 비록 현단계에는 구속력이나 실행의 범위에서 매우 제한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멕시코 사회내에서 페미니스트들이 제기해온 온갖 쟁점을 젠더 민주주의 관점에서 정립한

멕시코”라는 관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이다(Gutiérrez Vivo 1998: 132). 그러나 그가 비판의 논거로 내세우는 것은 인디오 공동체 내부의 갈등 문제일 뿐이다. 유럽주의자의 시각에서 그는 사실상 인디오와 기타 인구 사이에 존재하는 인종주의 문제는 덮어두고 있다.

것으로 상징적인 의미는 매우 크다. 나아가 과거 멕시코의 민족 정체성이 지닌 가부장적, 여성 억압적 실천을 정정하는 데에도 일정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3) 치카노 민족: 재영토화의 공간

20세기 말엽부터 가속화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과 수송 혁명의 결과 우리는 전통적으로 국경을 테두리로 한 영토에 뿌리를 둔, 다분히 낭만주의적인 민족주의의 관념이 약화되고 있는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민족의 방랑(diaspora)의 역사가 오래된 유대인이나 중국인의 경우 ‘원격지 민족주의’(long-distance nationalism) 현상이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많은 제3세계의 소수 민족들이 다dias포라를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를 새로운 민족 정체성을 규정하고 실천하는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 민족주의의 관념은 탈영토화와 재영토화를 통해 새롭게 재창조되고 있는 것이다. 북미 대륙의 치카노 인구가 ‘멕시코 민족’ 관념에 미치는 변화를 보면 글로벌 시대의 민족 관념이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지는지 살펴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흔히 멕시코에서는 ‘뽀초’(los pochos), ‘모하도’(los mojados)라 불리는 치카노의 역사는 근 150년에 이를 정도로 비교적 오랜 뿌리를 가지고 있다. 미국-멕시코 전쟁에서 잃어버린 영토에 살았던 세대부터 그들의 2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20세기 중반부터 본격화된 인구이동의 결과로 그 숫자도 1990년 기준으로 1,400만 명에 달한다(Corona의 계산). 이들이 살고 있는 곳도 비단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리노이, 오하이오, 아칸소, 애리조나, 뉴멕시코 등에 걸쳐 있다. 이제까지 미국 내부에서 자신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조직된 치카노 사회운동은 최근 들어 시선을 멕시코 내부로 돌리면서 새로운 ‘민족’의 일부로 자신들을 재정의하고 있다.

1988년 멕시코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열풍을 일으켰던 까르데나스 후보는 미초아칸과 사카테카, 그리고 멕시코 시티에서 물표를 얻었지만, 미

국의 오랜지 카운티나 산 앤토니오의 치카노 커뮤니티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 1994년의 대통령 선거와 사빠띠스따의 봉기는 치카노들이 멕시코 사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결집시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정치와 민족의 장래는 이제 그 국경을 넘어 미국의 이민자들 사회의 핫이슈가 되었으며, 이민자들은 자신들의 뿌리와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를 활용하였던 것이다.

로스앤젤레스의 치카노 밴드 그룹 칼리파스틀란(Califaztlan)¹³⁾은 사빠띠스따들을 “우리 문화의 재탄생”을 의미하는 “제6의 태양”(el sexto sol)¹⁴⁾으로 평가하며, 인디오의 정체성과 치카노 정체성의 융합을 음악으로 표현한다(Ramírez Cueva 1998). 사빠띠스따들도 1999년 3월에 조직한 전국 규모의 끈술따(선거)에 미국의 치카노 커뮤니티들을 포함시켜 ‘멕시코 민족’의 경계를 사실상 확대시켰다. 최근에 들어와서 치카노들은 자신들이 보내주는 어마어마한 송금으로 부실한 멕시코 경제가 그나마 돌아가고 있다고 믿는데, 그러기에 그 기여도는 당연히 정치적으로 대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98-99년에는 치카노들은 2,000년 선거에 선거권을 가질 것과 아울러 이중국적을 허용할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기도 하였다. 아직까지 멕시코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지만, 향후 이 쟁점들은 지속적으로 정치권과 치카노 공동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민족의 일부로써, 또 그러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개입하는 치카노들의 정치적, 사회적, 상징적 개입은 비단 경제적 상호의존성에만 뿌리를 둔 것이 아니다. 이미 미국과 멕시코의 지도는 부분적으로 탈영토화되고, 재영토화되고 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자. 만약 1,400만 명의 치카노가 멕시코 영토 내부에 친척과 형제들을 가지고 있

13) Califaztlan은 California와 아스떼까족이 멕시코로 이동하기 전에 살았다고 하는 전설적인 뿌리 Aztlan의 합성어이다. 아스틀란은 치카노 커뮤니티의 뿌리를 상징하는 유토피아적 고향인 셈이다.

14) “제5의 태양”은 아스떼까 제국이 망할 당시의 시기 이후를 말한다. 아스떼까 신에 따르면 새로운 세계의 탄생은 새로운 태양의 등장과 함께 한다.

다면 그 수는 얼마나 될까? 거꾸로 미국에 아는 친지나 형제가 없는 멕시코 사람들은 몇이나 될까? 필자는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숫자는 엄청나라 생각한다. 문제는 이들 인구 사이에 존재하는 새로운 네트워크가 주는 탈영토화 현상이다.

멕시코의 미초아칸 주는 ‘아길리야 그란데’(큰 독수리)라 불린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에는 이 주 출신들이 모여사는 ‘아길리야 치까’(작은 독수리)가 있다. 이들은 마치 다국적 기업의 네트워크처럼 효율적으로 고향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또 험한 이민 생활에서 보호해주기도 한다. 오아하카 주의 인디오 종족인 사뿐떼까 족이나 미스페꼬 족도 남쪽 오아하카 주에서 로스 앤젤리스에 이르는 긴 벨트 곳곳에 자신들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다. 일종의 ‘초국적 공동체’인 셈이다.

얼마전에 오아하카 인디오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인터넷으로 ‘오아하카 인디오 양국전선’(Frente Indígena Oaxaqueño Bilateral)을 결성했다. 국가도 아니며 사회계급도 아닌 그야말로 ‘네트워크 운동체’가 탄생한 것이다. 여기에는 오아하카에서 캘리포니아에 이르는 긴 벨트 속에 사는 오아하카 인디오들로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횡적으로 묶여있는 움직이는 공동체이다(Le Bot 2000). 이들에게 로스 앤젤리스는 멕시코 시티보다 심리적으로 가깝다. 정보화 사회가 던져준 이기로 인해 이미 이들에게 국민적인 영토적 공간 관념은 분절화되고 붕괴되어 가고 있다.

텍사스주와 인접한 멕시코 국경주들은 흔히 ‘텍스-맥스’라 불린다. 이 지경학적 공간은 자본과 상품 유통의 장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셀레나는 국경 양쪽에서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몬테레이에서 제작된 꿈비아(원래 콜롬비아 음악이나 여기서는 보다 도시화되고 대중적인 버전으로 표현된다)는 국경을 넘어 멀리 휴스턴까지 유행한다. 페하노 음악도 텍스-맥스 지대에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앵글로 아메리카의 전통을 유지하려는 보수적인 사람들에게 “미국 남부의 라틴화” 현상은 그 나름대로 근거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수니가는 멕시코의 탈영토화와 재영토화 현상을 다음과 같이 직설적으로 표현하다(Zúñiga

1998: 262).

1) 멕시코는 공식적인 정의에 의하면, 포술레를 먹고 마리아치 음악을 듣는 나라이다. 2) 멕시코는 도대체 어디에 있나? 3) 포술레를 먹고 마리아치 음악을 즐기는 곳은? 4) 포술레와 마리아치들이 많은 곳은? 5) 그곳은 바로 로스 앤젤리스와 시카고이다.

이러한 주장은 흔히 멕시코의 미국 서부 “재정복”의 스토리로 회화화되어 이야기되기도 하지만 문제는 전통적인 민족주의 관념이 기반하고 있는 영토적 기초를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토론거리를 제공한다. 초국적 이민의 네트워크, 혼합 문화의 유통, 그리고 치카노의 참정권 요구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경계를 사실상 모호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한 국민적 정체성 규정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 멕시코 민족의 정체성 관념에는 인디오의 자율성을 포섭해야 하는 부담뿐만 아니라, 해외 이민들을 포섭해야 하는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발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제 민족 정체성 토론에는 종래의 영토주의적 관념에서 벗어난 이중국적과 복수의 참정권(복수의 정체성)을 허용하는 실질적인 쟁점에서부터, 전자매체가 만들어낸 새로운 사이버 영토에서 이루어지는 민족의 문화적 상상적 재생산에 이르기까지 탈근대적인 쟁점이 개입하게 되었다. 멕시코의 사례는 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4) 들끓는 시민사회: 경제위기와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1) 일상생활의 야만적 민주화

1982년 외채위기를 경험한 멕시코 사회는 1994년에도 폐소위기를 맞이하면서 세기말에 이르는 근 20년간을 경제적 불안 속에서 보내게 되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굼직한 위기가 수차례 덮쳤다. 1984년에는 멕시코 대지진이 있었고, 1994년에는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암살당하고, 남부 치아파스 주에는 인디오 농민들이 무장반란을 일으켰다. 경제적 침체로 하층민들의 생활조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갔지만, 집권층은 무력

했다. 꼬박 꼬박 외채이자를 갚는 데만 열성이었지 멕시코 민족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대중을 이끌어가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공식적 민족’의 신화는 더 이상 지탱될 수 없었다.

그래도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은 신화는 지탱되었다. 팽창하는 경제가 그 신화를 바쳐 주었기 때문이다. 수입대체산업화의 성과와 석유붐에 이르는 기간 동안 멕시코 사람들은 위에서부터 아래층에 이르기까지 모두 팽창하는 부가 주는 즐거움을 만끽했다. 당시에 정치적 부패가 극심했지만, 민중들도 개인적인 치부가 주는 기쁨에 도취되어 있었기에 일종의 은밀한 공모자 심리를 가지고 있었다. “모두가 썩었기”(La corrupción somos todos)때문이었다.

그러나 외채위기와 멕시코 시티 대지진은 ‘정치적 관료제’로 불리는 집권층의 무능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석유붐에 편승한 팽창 정책은 엄청난 외채 누증을 불러일으켰고, 외채이자를 갚지 못할 정도로 외환 사정은 악화되었다. 이제 흥청망청하던 파티는 끝났고 취중에서 깨어난 대중들은 실업, 반실업, 저임금이 강제하는 ‘생존의 경계’에서 서성대어야 했다. 당연히 정부에 대한 반감과 불신이 생겨났다. 더욱이 멕시코 시티의 대지진 당시 정부가 보여준 무능은 이런 불신감을 증폭시켰다. 정부의 구호대는 능력을 부렸던 반면 시민들과 바리오 주민들이 조직한 시민사회 조직(NGO)들이 정부를 대신하여 구호 활동에 나섰던 것이다. 국제구호 단체들에서 보낸 의약품과 식량 등 구호물자도 어딘지 모르게 무더기로 사라져 버렸다.

정부와 상층 계급이 보여준 무능,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위기로 대중들이 겪어야했던 사회적 박탈감과 배제로 인해 대중들은 더 이상 국가의 공식 담론이 던져주는 허구적 일체감에 포섭되지 않았다. 이들에게 전달된 ‘연대’ ‘단합’ ‘반제’의 담론은 대중들로부터 냉소감만 자아내었을 뿐이었다. 1970년대까지 대중들이 유지했던 국가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과 국가승배는 이제 철저히 부서졌다. 코포라티즘 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크게 실추되었다. 서베이 조사에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집단 중

에서 상위권에 항상 머물러있는 세력이 어용 노조 지도자와 정치인들이다. 1988년 대통령 선거에서 제도혁명당은 개표하다가 불리해지자 컴퓨터를 끄는 소동까지 벌였다. “꺼진 컴퓨터 시스템”(caída del sistema)은 바로 기존의 정치 시스템의 붕괴를 상징하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경제위기와 이로 인한 사회적 위기는 대중들의 일상생활을 야만적으로 민주화시켰다. 일단 대중들은 국가와 제도혁명당의 기만적 담론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살리나스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제1세계로의 관문”이라고 선전했던 바로 그해 말 멕시코인들은 폐소위기를 경험했다. 세디요 대통령은 임기말인 2,000년 3월에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실현시켰다. 세디요는 다음 차례는 일본이라며, 이제 일본하고만 자유무역을 이룬다면 전세계의 모든 선진국과 경제적으로 완전히 결합된다고 TV에서 선전했다. 그러나 멕시코 언론이나 대중들의 반응은 차갑다. 멋진 신세계는 당신네들의 세계이지 매일 매일 끼니걱정하는 우리들의 잔치상은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1980년대이래 민중들은 자신들의 거주공간인 콜로니아(colonia)나 바리오(barrio)에서는 그들이 스스로 만든 ‘생존의 정치’를 실험해나갔다. 수도나 전기를 스스로 끌어오고, 빈민가를 조직하여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거리에 나서기도 했다. 멕시코 시티의 거대한 바리오인 때때로 지구의 민중들은 스스로 벽화를 통해 국가의 공식담론과 배치되는 사회갈등을 스스로 형상화해내었다. 경제위기로 취업할 곳을 상실한 청년들은 ‘차보 밴드’를 조직하여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들은 20-30명씩 어울려 다니면서 밴드 음악과 힙합, 그리고 마리화나를 통해 기성세대와 권력층을 조롱하는 반정치적 저항을 시도했다.¹⁵⁾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저항은 위로부터

15) 이에 대한 흥미로운 르본은 Monsiváis(1987)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의 책은 일상생활의 야만적 민주화가 가져온 대중 생활의 변화상을 로드 무비 형식으로 흥미롭게 그려내고 있어 멕시코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의 동질화 노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하층민들은 더 이상 지배층들이 주조하는 ‘하나됨’의 신화에 포섭되지 않는다. 민족주의는 1930년대 지식인들이 상상해내고 국가와 지배세력이 확산시킨 ‘멕시코성’의 신화에서 해방되어 드디어 민중들 스스로에 의해 주조되어 간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는 열린 괄호 속에 뒤섞여 있다. 몬시바이스에 따르면 멕시코는 ‘마침내 민족주의’(nacionalismo al fin)에 도달했다(Monsiváis 1992: 466). 그것은 기나긴 죽음에 뒤이은 재생이기도 하다.

2) 매스미디어와 대중의 수용: 미국화

매스 미디어의 영향도 기존의 ‘멕시코성’ 이미지를 붕괴시키는데 일조했다. 지난 20-30년간 매스 미디어는 멕시코의 도시와 농촌의 간극을 거의 없애 버렸다. 라디오와 TV의 전국적인 보급으로 내향적인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바깥 세계의 정보와 이미지에 노출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가속화된 미시전자 혁명으로 더 이상 정부의 미디어와 정보에 대한 통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다양화된 매스미디어,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은 ‘민족’을 상상하는 범위와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1980년대에 들어와 멕시코의 미디어 산업에는 집중화와 동시에 상업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거대한 텔레비사(Televisa)라는 언론 재벌이 탄생했고, 여기에 TV 아스페가가 가세하는 일종의 과점 구조가 정착되었다(Toussaint 1998). 상업화는 곧 바로 제작경비의 감축을 의미했고, 그것은 비용이 적게 되는 미국 영화와 프로그램을 대량으로 전파매체에 흘려보내는, 전파매체의 미국화를 뜻했다. 전통적으로 멕시코성을 표현하던 매체인 영화 산업도 위기의 한파로 그 제작량이 큰 폭으로 줄었다. 문화 산업에 대한 위기의 충격은 그 어디보다 컸다.

한 연구에 의하면, 1995년의 경우 멕시코 TV에서 방영한 영화 중에서 미국 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총시간 대비로 61.4%에 달했고, 황금시간대(Triple A) 대비로는 무려 75.78%를 달했다(Sánchez Ruiz 1998: 72). 텔레비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6년 동안 멕시코 TV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았던 100 대 프로그램”에서 상위 8위권은 각각 6편의 축구방영 프로그램, 두 편의 텔레노벨라가 차지했지만, 10위권 내에는 미국영화 ‘가라테 키드2’가, 그리고 100편중에서 46 편이 채널 5에서 방영한 미국 영화였다고 한다(Sánchez Ruiz 1998: 77에서 재인용).

방영 프로그램의 미국화는 텔레비사의 자료에서도 보여지듯이 곧 수용자층의 미디어 선호도에도 곧 반영된다. 외국 영화, 특히 미국 영화에 대한 선호도는 과달라하라, 메리다, 멕시코 시티, 띠화나, 그리고 몬테레이와 같은 비교적 큰 규모의 도시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ánchez Ruiz 1998: 76). 이는 그만큼 도시민들의 기호도가 바뀌었을 뿐 아니라, 미국 문화의 수용에 큰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대중의 기호 변화는 맥사메리카라는 새로운 지정학적, 지정학적 공간이 가져온 재영토화 현상, 그리고 치카노들과의 빈번한 접촉으로 생기는 새로운 공간을 통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멕시코성’의 치카노화를 부추길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여성참여의 효과

멕시코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적 남성 우위의 사회였다. 마초이즘과 성모 숭배 사상이 자연히 결합된 가부장제의 폭력이 사회 전반에 드리우고 있었다. 후안 룰포의 『빠드로 빠라모』에서 우리는 이 가부장제 폭력이 지배하는 사회의 음침한 그림자를 확인할 수 있다. 멕시코 혁명과 그 이후 등장한 사회도 가부장 권력을 의례화된 다양한 장치를 지니고 있었다. 혁명과 내전 자체가 남성들의 몫이었기에 이들의 타협으로 등장한 혁명 이후 국가도 바로 그 남성성을 체화하고 있었다. 더욱이 잦은 외침과 그로 인해 형성된 방어적 민족주의는 곧 바로 배외적 애국주의(patriotism)를 발전했고, “조국이 아니면 죽음을” 요구하는 마초주의적 심리와 자연스레 결합하게 되었다.

1980년대의 경제위기는 이러한 가부장적 이미지의 멕시코성에도 일대의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경제위기로 인해 가정에서 그릇을 닦고 아이

를 키우던 여성들도 거리로 나와 벌이에 나섰다. 마길라도라에서도, 거리의 좌판에서도 여성인구의 경제활동 참여는 급속도로 늘어났다. 1993년에 발간된 멕시코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의 25%가 여성이라고 한다(INEGI 1993). 그러나 이 통계는 고용의 40% 정도만 포괄하는 공식부문만을 나타낸 것이고 60%를 포괄하는 비공식 부문의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좌판이나 가게노동이 포함되어 있는 비공식 부문에 여성의 참여가 많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여성 참여율은 훨씬 높을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비단 하층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생활수준의 하락을 경험한 중간계급들에게도 여성 참여 비중은 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대해 왔다. 멕시코의 초중등 교육기관의 경우 교사들은 거의 여성들로 충원되고 있다.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교나 연구소에서도 여성의 참여율은 40%를 넘을 것으로 사료된다. 멕시코의 제2 도시인 과달라하라 대학교의 인문사회대의 경우 여성 교수 비중은 40%를 넘는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가시화되면서 이들의 정치참여도 큰 폭으로 증대하였다.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으로 치부되는 정치권에서도 여성들의 참여가 빠른 속도로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말미암아 과거 ‘공식적 민족’의 이미지가 내포하던 남성주의적 가부장적 색채는 빠른 속도로 희석되고 있다. 1980년 이전에 하원에서 여성의원의 비중은 대체로 10% 미만에 불과했고, 상원에는 한 명도 없었다. 정부 고위직에서 여성 장관을 찾기관 그야말로 힘들었다. 그러나 1997년 선거 이후 하원에서 여성의원의 비중은 17%로 늘어나 500명 정원 중에서 85명이나 되었다. 이 비율은 11.5%에 그친 미국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상원의원도 7명이나 배출되었다(Rodríguez 1999: 51-2).

여성들의 고위직 진출도 큰 폭으로 늘어나 매스컴을 통해 여성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접할 수 있다. 2000년 3월 현재 멕시코 시티의 시장인 민주혁명당의 로사리오 로블레스, 제도혁명당 총재 들세 마리아 사우리, 외무부 장관인 제도혁명당의 로사리오 그린이 가장 대중에게 노출된

여성 정치인일 것이다. 이외에도 100만 명이 넘는 전국교원노조(SNTE) 위원장을 역임한 엘바 에스페르 고르디요도 상원의원으로 제도혁명당의 큰 손 중의 하나로 꼽힌다.

치아빠스 반란에서 제기된 인디오 여성들의 남녀 평등권 투쟁, 그리고 다양한 여성단체들의 여권 운동, 그리고 경제적 참여의 증대와 정치적 비중의 확대로 열린 여성들의 큰 목소리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가부장적 ‘멕시코 민족’의 이미지를 바꾸어 나가고 있다. 멕시코 민중들은 이제 더 이상 인디오 페르난데스의 가부장적 이미지를 향수로 생각하지 않는다. 멕시코의 공화제 정치는 과거 어느 때보다 ‘형제들의 계약체제’에서 벗어나 여성의 참여를 빠른 속도로 증대시키고 있다. 1993년 아르헨티나에서 통과된 쿼터법은 이곳 여성운동권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는 멕시코 민족의 상투적인 이미지, 즉 과달루페 성모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모든 슬픔을 견디어 내는 멕시코 여성의 이미지는 역사책 속에서나 볼 수 있을 것이다.

6. 결 론

위에서 우리는 1982년 외채위기 이후 국가가 발전모델을 변경하면서 새로운 신자유주의적 담론 정치로 국민적 정체성을 주조하려하는 노력을 살펴보고, 또 그 노력이 별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엘리트와 대중들 사이의 일체감이 살아졌기 때문에 엘리트들의 사회통합 노력은 그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와중에서 혁명이후 억압된 ‘여러 개의 멕시코’(many Mexicos)가 새로운 환경 속에서 들끓고 오르고 있는 것이다.

멕시코에서 앞으로 탄생할 민족정체성은 적어도 이 ‘여러 개의 멕시코’가 제기하는 문제의식, 그리고 국가와 지배층의 헤게모니 담론이 먹혀들지 않는 공간에서 대중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자신들의 이미지와 상

정 등이 포괄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논의를 마무리하도록 하자.

첫째 멕시코 시티에서 주도된 민족문화의 신화는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 것이다.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북부 국경주들의 '치카노화'된 독특한 지방문화는 물론, 여타 지방주들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지방문화는 향후 강화될 연방주의적 틀 속에서 다원주의적 특성을 강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바탕아래 복수의 하위 문화가 잘 조화된 멕시코의 문화적 정체성이 향후 탄생할 것이다.

둘째, 치아빠스 반란이 멕시코 민족 정체성에 제기한 것은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융합적 통합주의에 바탕을 둔 민족 정체성이다. 멕시코 인디오들은 이제 박물관과 토산품 가게에서 볼 수 있는 박제화된 문화와 생활방식을 거부하고, 공동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삶을 요구한다. 메스티조 민족주의 관념도 이제 차이를 인정하는 새로운 민족 관념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셈이다.

셋째, 1980년대 이래 탄생한 멕시코 북부의 새로운 영토적 비교우위 시스템은 글로벌 시대의 통신 및 수송 혁명에 힘입어 새로운 형태의 재영토화(백사메리카)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와중에 그 동안 멕시코 정치에 별로 개입하지 않았던 치카노들도 멕시코 국민의 일부로 받아들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영토적 공간 내에는 새로운 수평적 공동체도 탄생하고 있다. 이들의 존재는 결국 이중국적(미국인이자 멕시코인), 내지 삼중의 정체의식(오아하카 인디오이면서 멕시코인이자 미국인)이 전혀 불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넷째, 1982년 외채위기로 강제된 대중 생활의 야만적 민주화는 대중 생활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빈민가의 청년들이나 거주민들은 멕시코 국가의 실패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체험하여 나름대로 정치적, 반정치적 저항을 실천한다. 이에 따라 멕시코 국가나 엘리트의 신자유주의 담론 정치의 침투력은 적어도 이들에게는 제한적이다.

다섯째,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문화산업에의 투자 침체로 인해 멕시코

의 매스 미디어에 대한 미국 전파 매체의 영향력이 커졌다. 이에 따라 대중들의 의식에서 반미 의식은 점차 희석되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중간층과 상류층은 스스로 미국 문화를 선호하기도 한다. 그러나 하층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거부감이 포착되고 있어서 정체성 의식에 계급적 편차를 드러내기도 한다.

여섯째, 외채위기로 인해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는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하층부터 전문직업인들에 이르는 중상류층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포착되는 현상이다.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는 정치적 영향력 증대로 표출되고 있고, 이로 인해 가부장적 남근중심주의적 이미지의 멕시코 민족주의도 점차 희석되고 있는 중이다.

현단계 멕시코 민족주의는 과거의 반외세적, 통합적 민족주의 이념에서 벗어나 한편으로는 세계화가 요구하는 압력을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사회가 주는 압력을 받아서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고착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대의 사조인 ‘차이의 정치’(politics of difference)와 다원주의적 요구를 포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제는 곧 현단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라 있는 인디오들의 자율성 요구, 치카노들의 참정권 요구, 지방의 연방주의적 요구, 젊은 층들의 반정치적 저항, 여성들의 젠더 민주주의 요구 등을 수용하여 보다 다원주의적 담론 게임 속에서 국가의 역사를 새롭게 상상 속에서 재구성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이성형, 1998. 『IMF 시대의 멕시코: 신자유주의 개혁의 명암, 1982-1997』, 서울대 출판부.
- , 1999a. 『신자유주의의 빛과 그림자: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와 경제』, 서울, 한길사.
- , 1999b. “멕시코 혁명 이후의 민족 정체성의 정치,” 『서양사론』 제62호, 한국서양사학회.
- , 1999c. “개방의 정치적 효과: 멕시코의 경험,” 『신자유주의의 빛과 그림자』.
- Anderson, Benedict, 1983. *Imagined Communities*, London: Verso.
- Bartra, Roger, 1993. “La crisis de nacionalismo,” en *Oficio mexicano*, México: Grijalbo.
- , 1991. *The Cage of Melancholy: Identity and Metamorphosis in the Mexican Character*,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Bustamante, Jorge A., 1996. “Etnicidad en la frontera México-Estado Unidos: Una línea hecha de paradojas,” en Ruiz y Ruiz(coord. 1996).
- Castaneda, Jorge, 1986. “México: El desafío democrático,” *Nexos*, septiembre, no. 105.
- EZLN, 1995. *Documentos y comunicados*, tomo 2, México: Era.
- Florescano, Enrique, 1999. *Memoria indígena*, México: Aguilar.
- , coord. 1997. *El patrimonio nacional de México, tomo 1, 2*, México: FCE.
- González, Luis, 1992. “Patriotismo y matriotismo, cara y cruz en México,” en Noriega(1992).
- Gutiérrez Vivo, José, coord., 1998. *El ‘otro yo’ del mexicano*, México: Oceano.
- Hiernaux Nicolás, Daniel, 1998. “Reestructuración económica y cambios

- territoriales en México: 1982-1995.” en Carlos A. de Mattos y otros, coord., *Globalización y territorio: Impactos y perspectivas*, México: FCE.
- Javier Guerrero, Francisco, 1990. “Identidad nacional y norte de México,” en Lourdes Arizpe y Ludka de Gortari (coord.), *Repensar la nación: Fronteras, etnias y soberanía*, México: CIESA.
- Le Bon, Yvon/ Subcomandante Marco, 1997. *El sueño zapatista*, México: Plaza & Janés.
- Leyva-Solano, Xochitl y Willibald Sonnleitner, 2000. “¿Qué es el neozapatismo?” *Espiral*, 6(17), enero-abril.
- Loaeza, Soledad, 1994, “The Changing Face of Mexican Nationalism,” in Delal Baer and Sidney Weintraub, ed., *The NAFTA Debate*,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 Lomnitz, Caudío, 1998. *Modernidad Indiana: Nuevos ensayos sobre nación y mediación en México*. México: Planeta.
- Monsiváis, Carlos, 1987. *Entrada libre: Crónicas de la sociedad que se organiza*, México: Era.
- , 1992. “Muerte y resurrección del nacionalismo mexicano,” en Noreiga Elio(1992).
- Noriega E., Cecilia, ed., 1992. *El nacionalismo en México*, Zamora, México: El Colegio de Michoacán.
- Rodríguez, Victoria E., 1999. “Las mujeres y el cambio político en México,” *La Ventana*, no. 10.
- Ruiz, Ramón E., y Olivia Tereza Ruiz, coord. 1996. *Reflexiones sobre identidad de los pueblos*, Tijuana, México: El Colegio de la Frontera Norte.
- Sánchez Ruiz, Enrique E., 1998. “Cine y globalización en México: El desplome de una industria cultural,” *Comunicación y Sociedad*, no. 33, mayo-agosto.

- Stavenhagen, Rodolfo, y Tania Carrasco, 1997. "La diversidad étnica y cultural," en Florescano(coord. 1997).
- Toussaint, Florence, 1998. *Televisión sin fronteras*, México: Siglo XXI.
- Valenzuela Arce, José Manuel, coord., 1992. *Decadencia y auge de las identidades: Cultura nacional, identidad cultural y modernización*, Tijuana: El Colegio de la Frontera Norte.
- Zepeda P., Jorge, 1992. "La nación vs. las regiones," en Noriega(1992).
- Zúñiga, Víctor, 1998. "Los 'otros' mexicanos(indios y pochos): La cuestión de la diferencia en México," Juan Manuel Ramírez Saiz, Jorge Regalado Santillán, coord. *El debate nacional/ 4. Los nuevos actores sociales*. México: Editorial Diana.